

#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최 규 철

(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이 호 열

(부산대학교 산업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경남, 근대한옥, 안채, 평면형, 전퇴형, 전후퇴형, 후퇴발달형, 두칸형, 세칸형

## 1. 서론

근대기 한옥은 전통한옥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새로 유입된 재료와 기술을 적절히 구사하여 내외 공간구성과 이용방식, 입면 등에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개항이후 일제강점기의 한옥을 ‘근대한옥’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이 연구는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인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건축된 경남지역 근대한옥 안채의 건축적 특성과 변천과정을 다루는데 있다. 현재 우리 건축계가 당면하고 있는 일차적 문제, 즉 주택 문제 등의 양적문제와 일체의 전통론을 포함한 질적인 이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기 주거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up>2)</sup>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기에 한국은 정치 및 사회·경제·문화 등의 제방면에서 급격하게 변모를 경험하였다. 외래의 새로운 주문화가 전래되고, 개항장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외래의 새로

운 住文化를 전통한옥에 수용 절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sup>

근대기가 되면서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농촌의 지주계층에서도 당시의 변모하는 생활상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한옥을 많이 건축했다. 특히 농업경영을 통해 富를 축적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지방의 富農階層(또는 地主階層)은 그들의 새로운 의식과 생활방식을 주거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근대기 한옥의 연구를 통하여 이 시기 주거의 변화양상을 動的으로 파악하고 이 후 史的 전개의 방향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sup>4)</sup>

그동안 1876년 개항이후 일제강점기의 근대기 건축에 대한 연구는 소위 ‘근대건축’이라 부르는 洋式·日式建築 및 韓洋·韓日 절충식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근대한옥은 그 역사가 짧고 우리의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19세기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항(1876년)이후 일제강점말기(1945년)

1) 이호열 「주거-반가」, 『한국건축사연구1』, 한국건축역사학회(발언), 2003, p.223~224

2)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1982, 서울대 석론, p.2.

3) 이상길, 「경남 밀양지역 근대한옥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2년, 밀양대 석론, p.1

4) 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부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1, 서울대 석론, p.1

에 이르는 시기에 지어진 한옥을 근대한옥<sup>5)</sup>이라 규정하고, 이 시기에 건축된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25개 사례를 대상으로 구조적, 공간적 변화의 양상 및 변화의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강점기말 사이에 건축된 경남지역 건축된 근대한옥<sup>6)</sup>이다. 연구대상 근대한옥의 위치와 건립연도는 표 17과 같다. 연구의 대상은 근

표. 1 연구대상 목록

NO	지역	가옥명	주소	건립연도
1	밀양	이근성 가옥	부북면 퇴로리 319	1890년대
2		안병기 가옥	부북면 청운리 631-6	1870년대
3		손영배 가옥	교동	1880년
4		손대식 가옥	교동 787	1901년
5		손병순 가옥	교동 783-1	1900년대
6		손병준 가옥	교동 796-3	1880년대
7		손병구 가옥	교동779번지	1915년
8		손용상 가옥	산외면 다죽리 239번지	1910년대
9		손완현 가옥	산외면 다죽리 228번지	1912년
10	창녕	성씨고가	대지면 석리322번지	1929년
11		신씨고가	영산면 교리 91번지	1851년 (1940년 중수)
12	의령	정대숙 가옥	의령읍 서동464번지	1930년
13	함안	이씨고가	산인면 모곡리 580번지	조선후기
14	고성	박진사고가	개천면 청광리 292-2	1850년전후 (일제시기중축)
15		이씨고가	대가면 송계리842	1905년
16		최영덕 가옥	하일면 학림리1011	1869년
17		최희식 가옥	가류면 당동리368	1907년
18	거창	신도성 가옥	위천면 황산리 487	1926년
19		신진범 가옥	위천면 황산리	1920년대
20	산청	최재기 가옥	단성면 남사리 285	1919년
21		권씨고가	신동면 단계리 북당	1900년대
22		박씨고가	신동면 단계리 629-5	1919년
23	합양	민병기 가옥	생초면 대포리	1900년대
24		권갑용 가옥	단성면 소남리	1917년
25		조동윤 가옥	단성면 소남리	1902년
26		허삼달가옥	안의면 금천리 196	1918년

5) 이호열은 「대구지방 근대한옥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근대화의 과정인 개항(1876년)이후부터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에 건축된 한옥을 ‘근대한옥’이라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호열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6) 조사대상가옥 중 1876년 이전에 건립된 가옥도 근대 성향이 나타나거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가옥은 근대에 지은 가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7) 가옥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기로 한다. 건립연대 표기는 안채를 대상으로 했다.

대기 경남지역의 지주계층(부농포함)이 건축한 한옥으로, 문화재 및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 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복원적 연구가 가능하며 건립시기가 분명한 근대한옥 8동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18C후반의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토지 소유의 사유화는 부농의 형성과 성장을 가져왔고, 이들은 실학의 영향으로 근대 지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유교적인 관습보다 실생활에 중심을 둔 주거문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개항이후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래문물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이 시기의 한옥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sup>8)</sup>

## 2. 안채 평면 분석

### 2-1. 평면유형과 규모

경남지역 근대한옥은 퇴칸의 발달정도와 측면 間數 등의 세부형식의 차이에 따라 ‘전퇴형’, ‘후퇴발달형’, ‘두칸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대한옥 안채의 경우 前時期에 비해 양단부의 평면구성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평면상 좌우 단부(끝부분)에 위치하는 정지나 건너방 부분의 평면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평면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 ‘전후퇴형’, ‘두칸+퇴칸형’, ‘새칸형’이 더 추가될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평면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전퇴형’은 안방·마루·건너방 앞에 퇴칸이 길게 부설된 형태의 평면유형을 말한다. 연구대상 근대한옥 중 고성 최씨고가(그림.1)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4/26동) 주로 19세기말부터 1930년대 사이에 건축된 근대한옥 안채

8) 이상길, 「앞논문」, P3

표 2. 안채 세부 평면유형(1칸 기준)

유형	전퇴형(A) 기본형	전후퇴형(A') 전퇴+후퇴	후퇴발달형(B) 후퇴 발달	두칸형(B') 단부2칸형	두칸+퇴칸형(C) 후퇴발달+후퇴+퇴칸	세칸형(D) 단부 3칸형
평면						

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꾸준히 건축된 평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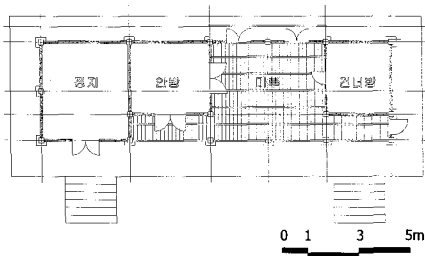


그림 1. 전퇴형(고성 최영덕가옥 평면도)

‘전퇴형’의 평면에 다양한 室面積의 확대요구와 진일보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반영되어 나타난 평면형이 중앙부(안방, 마루) ‘전퇴형’에 端部(정지) ‘두칸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앙부(안방, 마루)는 ‘전퇴형’이나 단부의 정지 부분이 횡분할된 평면형이다. 이처럼 중앙부(안방, 마루)를 ‘전퇴형’으로 구성하고, 정지 부분을 횡분할한 평면형식은 밀양 손용상 가옥(그림.2), 밀양 손완헌 가옥, 거창 신진범 가옥, 함안 이씨고가 등에서 볼 수 있으며(4/26동), 주로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에 건축된 근대 한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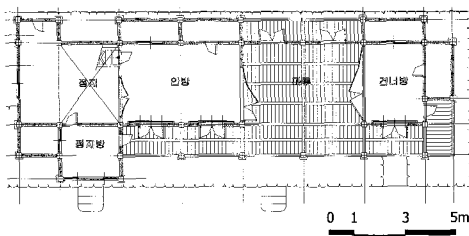


그림 2. 정지부분-두칸형  
(밀양 손용상가옥 안채평면도)

이밖에 중앙부가 ‘전후퇴형’이고 단부(정지부분)가 ‘두칸형’인 평면에 전퇴 또는 후퇴가 부가된 형식이 있다. <표 2>의 두칸+퇴칸’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室面積의 확대요구에 따라 중앙부(안방, 마루) 평면이 ‘전후퇴형’(그림 3)으로 구성되고, 端部인 정지부분이 ‘두칸+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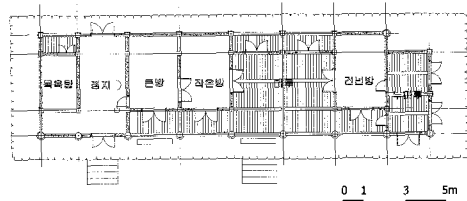


그림 3. 전후퇴형

(산청 권갑용가옥 안채평면도)

칸’으로 구성된 평면형식이나, ‘전퇴형’의 중앙부(안방, 마루) 배면 및 단부(정지)의 ‘두칸형’ 평면에도 퇴칸(전퇴 또는 후퇴)이 부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평면형식에서는 정지 측면 중앙부에 기둥이 있으나 이는 단지 층량을 지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기둥에 의해 정지부분의 내부공간이 횡분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지 내부공간이 타 평면형식보다 넓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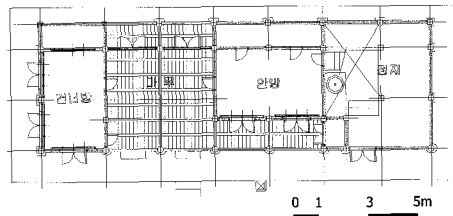


그림 4. ‘두칸+퇴칸’형  
밀양 손영배가옥 안채평면도

이다. 19세기말에 건축된 밀양의 손영배가옥(그림4), 손대식가옥이 이 형식에 속한다.(2/26동)

그리고 중앙부(안방, 마루)는 ‘후퇴발달형’이고, 단부(정지)가 ‘후퇴발달형’ 또는 ‘두칸형’인 평면이 있다. ‘후퇴발달형’은 경남지역의 근대한옥 안채에서 가장 보편적인 평면형이다. 안채 後部에 일반적인 퇴칸의 폭보다는 넓고 일반적인 1칸보다 좁은 폭의 후퇴를 둔 평면형을 말한다. 거창 신도성 가옥, 고성 이씨고가, 산청 민병기 가옥, 함양 허삼들가옥(그림 5) 등이 이 형식에 속하며,(8/26동) 20세기 초에서 중반 사이에 건립된 근대한옥에서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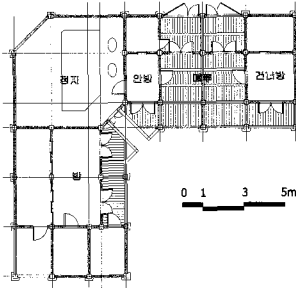


그림 5. 후퇴발달형 (함양 허삼들가옥 안채평면도)

상기 평면형식 중 端部 ‘두칸형’은 양 단부인 정지와 건너방 부분을 공히 두칸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정지부분에서는 앞쪽에 정지방을 두고, 뒤쪽에 정지를 두며, 건너방 부분에서는 건너방 밖으로 室(마루방 등)을 부가시키고 횡분할하여 앞뒤에 마루방과 화장실을 배설한 평면형식이다. 연구대상 중 1929년에 건축된 창녕 성씨고가(그림 6)가 이 형식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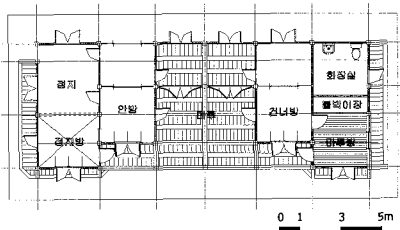


그림 6. 정지 건너방부분 두칸형 (창녕 성씨고가 안채 평면도)

끝으로 중앙부(안방)와 단부(정지, 건너방)의 평면이 공히 ‘두칸형’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즉 ‘후퇴발달형’의 평면형에서 후퇴 폭 만큼 뒤로 더 확장하여 배면에 일반적인 1칸 규모의 공간을 형성한 것으로, 중심부(안방)와 단부(정지, 건너방)의 측면 柱間이 ‘두칸’의 넓이로 구성된 평면형이다. 연구대상 중 19세기말에 건립된 밀양 이근성가옥이 이 형식에 속한다.

연구대상 근대한옥의 평면유형을 살펴본 바 초기에는 ‘전퇴형’평면에서 다양한 室面積의 확대요구에 의해 중앙부(안방, 마루) ‘전퇴형’에 단부(정지) ‘두칸’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 형식이 발달하여 중앙부(안방, 마루)가 ‘전후퇴형’이고, 단부인 정지부분이 ‘두칸+퇴칸형’인 평면으로 변천해 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평면에서 端部인 정지나 건너방 부분은 ‘두칸형’ 평면으로 발전하나 중심부(안방, 마루)는 ‘후퇴발달형’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단부의 평면이 분화하면서 건너방 측면에 室을 부가하여 횡분할한 ‘두칸형’의 평면유형도 나타났다.

### 3. 중심부와 단부의 평면구성

#### 3-1. 중심부 평면구성

##### (1)마루부분 평면구성

연구대상 근대한옥의 마루는 안채의 평면유형과 같은 ‘전퇴형’과 ‘후퇴발달형’으로 구분된다.(그림7 참조) ‘전퇴형’은 창녕 신씨고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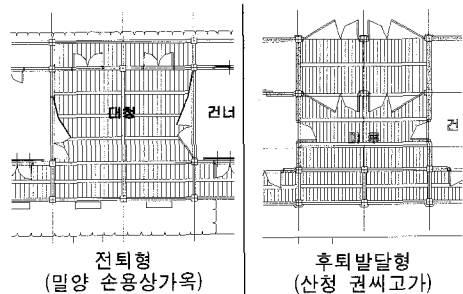


그림 7. 안채 마루부분 평면유형

(14/26동)에서 나타나고, '후퇴발달형'은 밀양 손병준가옥 등(11/26동)에서 볼 수 있다. '전퇴형' 마루(대청)는 대개 정면 2칸 측면 1.5칸의 규모의 통칸으로,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위치한다. 마루(대청)의 앞은 안마당을 향해 개방되고, 배면벽은 판벽과 여닫이 판문으로 폐쇄되어 있다. 마루는 좌우 양측에 있는 안방과 건너방으로 동선과 공간을 연결한다.

'전퇴형' 마루(대청)의 사례는 밀양 손용상 가옥 안채(그림7의 좌측)에서 볼 수 있는데, 마루 정면의 柱間은 2,400mm이고, 배면에 폭 900mm의 쪽마루가 달려 있다. 마루가 '후퇴발달형'인 경우 마루 배면에는 후퇴가 발달한 넓은 공간이 형성된다. 이 경우 마루 배면의 후퇴 폭은 1,500~1,800mm로, 일반적인 후퇴의 폭보다 300~600mm 정도 넓다. '후퇴발달형' 마루에서는 마루를 횡분할하여 앞쪽을 생활용으로, 뒤쪽을 수장용으로 사용한다. 마루를 구획할 때는 柱列에 맞추어 벽체를 세우고, 문을 달아 통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앞쪽의 개방적인 마루와 후면의 수장용 공간으로 구분된다. 특히 밀양 손병구가옥(그림 8)은 앞쪽의 개방된 마루와 뒤쪽 수장용 마루의 경계에 네 짝 미서기 유리문을 달아 생활공간화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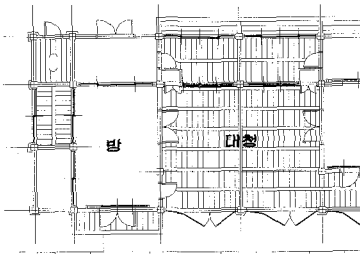


그림 8. 밀양 손병구 가옥 안채 마루부분 평면도

이다. 마루 배면에도 유리창을 달아 후퇴가 발달한 부분을 실내공간화 했으며, 배면 뒷마루 좌우에 건너방과 안방의 반침과 통하는 외쪽 여닫이문을 달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게 했다.9) 이는 안채 마루 배면이 판벽과 판문으로

폐쇄되는 일반적인 안채구성과는 다른 형태라 하겠다.

'후퇴발달형'에서 앞뒤 마루를 횡으로 구획하기 위한 벽을 시설하는 경우 중도리와 상인방 사이를 소로로 수장하기도 한다.10) 산청 권씨고(그림9)에서는 마루가 횡분할된 경계에 네 짝의 들어 열개문을 달아 놓았으며, 뒷쪽 마루는 앞쪽의 마루바닥보다 200mm 정도 높다. 이는 연구 대상 근대한옥 중 유일한 것으로, 제례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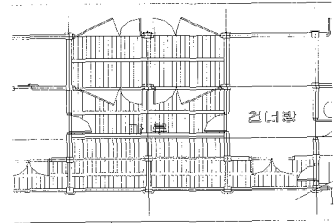


그림 9. 산청 권씨 고가 안채 마루부분 평면도

경남지방 근대한옥의 마루(대청)는 전라도 지역의 폐쇄적인 대청과는 달리 개방적인 것이 특징이다. 전남지역의 근대기 한옥에 대한 선행연구11)에 따르면 대개 안채의 정면을 단정하게 표현하고, 규칙적인 입면을 나타내기 위해 마루 정면에 세살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경남지방 근대한옥에서도 동시기 전남지역 근대한옥과 같이 정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거창 신도성 가옥, 거창 신진범 가옥, 의령 정태숙 가옥, 밀양 손병구, 손완헌가옥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거창 신도성 가옥과 거창 신진범 가옥에서는 마루 앞에 띠살문을 달았고, 의령 정태숙가옥, 밀양 손병구, 손완헌가옥에서는 뒷마루 앞쪽에 근대적 재료인 유리를

9) 밀양 손병구 가옥, 창녕 성씨고가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마루(대청)을 통해서 안대청으로 통하는 동선 체계를 방에서도 바로 안대청까지 연결하도록 동선의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0) 산청 최재기 가옥은 의창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고 중도리 밑에 소로를 수장했다.

11) 이강민, 「앞논문」

끼운 유리문이 시설되어 있다. 이렇게 안채 마루 앞을 개방하지 않고 유리문이나 띠살문을 달아 폐쇄하게 되면 방과 마루의 입면이 통일되어, 종래와 다른 규칙적인 입면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는 한옥의 마루가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居室化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안채 정면에서 요철을 꺼리고 단정하고 규칙적이면서 반복적인 패턴을 선호하는 경향은 근대한옥에서 나타나는 입면 구성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근대 이전의 상류주택에서 중앙마루는 개방되어 여름 한 철 이용 가능하고 그 기능적 측면보다는 옥내 생활의 중심으로서 그 상징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sup>13)</sup>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안채로 집중되고 중앙마루는 제례 공간, 수장 공간, 접대 공간, 가족공간의 기능 모두를 수용해야 했다. 따라서 마루의 공간적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이는 ‘후퇴발달형’ 마루에서 마루를 횡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마루를 앞뒤 두 공간으로 구분하고, 앞쪽에는 개방적인 생활용 마루(대청), 뒤쪽에 수장용의 고방을 두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근대기에 들어와 ‘후퇴발달형’ 마루에서 앞뒤 마루의 기능을 구분하여 앞쪽에 생활용의 마루를 두고, 뒤쪽에 수장용 마루를 둔 형태로 변모한 것은 마루(대청)에 대

한 개념이 생활에 바탕을 둔 기능적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sup>14)</sup> 즉 외부로 드러나는 마루와 내부로 감춰지는 마루로, 마루의 기능이 확실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안방부분 평면구성

경남지방 근대한옥의 안채에서 평면구성상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이 안방부분이다. 안방 평면의 유형은 구성형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퇴가 없이 전퇴만 있는 경우와 후퇴가 수장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안방에 부속된 副寢室이나 마루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즉 안방부분 평면형식에 따라 ‘전퇴형’과 ‘전후퇴’, ‘후퇴발달형’, ‘두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10)

‘전퇴형 안방’의 실례는 함안 이씨고가 등(11/26동)에서 볼 수 있고, ‘전후퇴형 안채’의 실례는 밀양 손영배 등에서 나타난다.(3/26동) 그리고 ‘후퇴발달형’의 안방은 산청 권씨고가 등(11/26동)에서 볼 수 있다. ‘두칸형 안방’은 연구대상 근대한옥 중 중앙부와 단부가 공히 두 칸형으로 구성된 밀양 이근성 가옥에서 볼 수 있다.(1/26동) 안방 내부공간을 횡으로 분할한<sup>15)</sup> 경우는 ‘후퇴발달형’, ‘두칸형’의 안채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퇴형’의 안방(그림10의 1)은 전퇴에 뒷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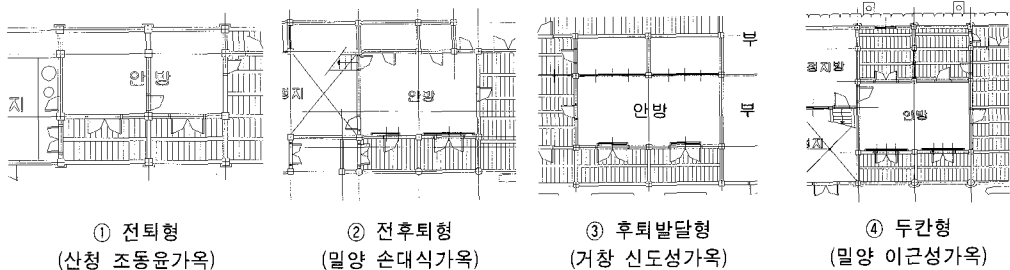


그림 10. 안방 평면유형

12) 이강민, 「앞논문」 p.61 재구성

13) 이종철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공간적 특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5권 2호 통권46호 2006년 6월

구」, 1976년, 서울대 석논, p.62~63 재인용: 김봉열 「앞논문」 p.28

루를 놓고, 후면에 반침 등의 수장 공간을 시설한 형태이다. 앞쪽 뿔마루와 중앙 마루(대청), 정지 등 삼면에 개구부를 시설하여 안채 내 여러 공간에서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전후퇴형’의 안방(그림 10의 2)은 대개 정면 2칸 규모이며, 정면 매 칸에 같은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했다. 창호는 곁창으로, 방 안쪽에는 미단이문을, 바깥쪽에 여단이 띠살문을 달았다. 안방 정면 칸수가 2칸인 밀양 손대식가옥 등의 일부 근대한옥에서는 두 칸 공히 두 짝 여단이문을 시설하지 않고, 부엌 쪽 柱間에 외여단이 띠살문을 단 경우이다. 안방의 後部 공간은 주로 수장 공간인 반침으로 사용되며, 후퇴의 폭은 대개 1,000~1,200mm 정도이다. 안채 배면에 수장용의 반침을 형성하기 위해 처마도리 밖에 가는 보조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 의지하여 반침의 외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기둥은 상부 하중의 지지와 상관없이 단지 반침의 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근대기에 건축된 한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후퇴발달형’ 안방(그림 10의 3)의 후퇴 폭은 1,500~1,800mm로, 일반적인 후퇴보다 300~600mm 정도 더 넓다. 이에 따라 안방의 실내면적이 더욱 증대되어 안방을 횡으로 분할하여 앞쪽 공간(아랫방)과 뒤쪽 공간(웃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sup>14)</sup> 안방 뒤쪽에 위치하

는 웃방은 아랫방을 통해서 다른 실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랫방과 웃방과의 구획은 벽이 아니라 문을 달아 구획하고 있다. 필요시 문을 떼어내면 웃방과 아랫방은 공간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전남지역 흥기옹가옥<sup>17)</sup>에서는 안방의 웃방과 아랫방이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례는 연구대상 경남지방 근대가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시기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에서는 안방을 구획하나 필요시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남지역 흥기옹가옥은 안방을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두칸형’의 안방(그림 10의 4)은 중앙부(안방, 마루)와 단부(정지, 건너방)의 室이 공히 두 줄로 배열된 밀양 이근성 가옥에서 볼 수 있다. 이근성 가옥의 안방 뒤쪽의 후퇴 폭은 2,200mm로 거의 한 칸 규모로 넓다. 이 공간은 안방에 부속된 마루방으로서, 안방의 아랫방과 연결하여 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고향으로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기에 들어와 근대한옥의 안방은 점차 규모가 증대되었다. 그 이유는 식사관습의 영향이 크다. 그 이전의 주거에서 남여가 따로 식사를 하던 관습이 이 시기에 오면 직계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며슴과 찬모들이 각각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sup>18)</sup> 이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안방은 넓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안방의 규모가 증대된 것은 식사관습의 변화 및 안방이 주생활의 중심공간이 되고, 생산량의 증대로 수장 공간이 확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4) 김봉열 「앞논문」 p.45

15) 안방을 구획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구획된 공간이 반침이 아니라 생활용 室로서 사용하는 가옥을 말함.

16) 웃방은 안방 윗목에 인접한 방으로 이 웃방과 안방 사이는 네 짝 미단이 창호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 열어 놓는다. 이 웃방의 윗목에는 장과 놓, 반단이 등을 늘어 놓고 이 위에 실함, 반질고리 등을 얹어 둔다. 바닥과 벽, 천장의 마감은 안방과 같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도 안방의 앞쪽공간을 웃방, 안방의 뒤쪽공간을 아랫방이라 칭한다.(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한국문화대계10, 일지사, p.224)

17) 지금은 안방이 웃방과 아랫방이 한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초창기에는 웃방에서는 나이 찬 딸이 기거하였고 베를 짜거나 밥 청으로도 썼으며, 아랫방은 살림을 주관하는 주부의 차지였다.

18) 이강민 「앞논문」 p.68

3-2. 端部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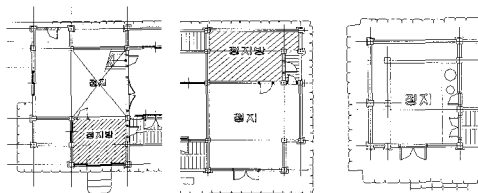
(1) 정지부분 평면구성

갑오개혁이후 점차 생산 활동과 가사노동을 부담하던 사역인(노비계급)이 소멸되면서 집안의 가사노동이 주부에게 집중되고 가사노동의 중심인 정지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인식되었다. 즉 근대기에 주택 내 정지가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취급되면서 정지 내에서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부담하기위해 취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지방, 찬방들이 부가되었다.<sup>19)</sup>

표 3. 정지 부분 평면구성

유형	사례	實例
前面정지방	4	밀양 손용상가옥, 밀양 손완헌가옥, 창녕 성씨고가, 거창 신진범가옥
後面정지방	4	밀양 이근성가옥, 함안 이씨고가, 거창 신도성가옥, 산청 권씨고가
일반정지형	17	밀양 안병기가옥, 밀양 손영배가옥, 밀양 손대식가옥, 밀양 손병순가옥, 밀양 손병준가옥, 밀양 손병구가옥, 창녕 신씨고가, 고성 박진사고가, 고성 이씨고가, 고성 최영덕가옥, 고성 최희식가옥, 산청 최제기가옥, 산청 박씨고가, 산청 민병기가옥, 산청 권감용가옥, 산청 조동윤가옥, 함양 허삼들가옥

정지는 공간구성과 사용방식에 따라 ‘前面정지방형’, ‘後面정지방형’, ‘일반정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11, 표3) ‘일반정지형’은 안채의 단부에 정지가 놓이고, 내부공간을 모두 정지 용도로 사용하는 형식이



① 밀양 손용상가옥 (前面정지방)  
 ② 거창 신도성가옥 (後面정지방)  
 ③ 산청 조동윤가옥 (일반형)

그림 11. 안채 정지부분 평면형식

다. 밀양 안병기 가옥 등 17가옥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정지형’은 전후퇴와 측퇴를 모두 정지로 사용하는 형식이다.

‘前面정지방형’과 ‘後面정지방형’은 정지방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 방향으로의 확장 또는 분화라는 구조기술적인 토대에 의해 정지에 부속된 정지방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前面정지방형’은 前面에 정지방을 두고 뒤에 정지를 형태이며(4/26동), ‘後面정지방형’은 앞쪽에 정지를 두고 뒤쪽에 정지방을 둔 형태(4/26동)이다. 앞뒤에 정지방을 둔 정지형식은 가사노동의 동선을 단축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前面정지방형’과 ‘後面정지방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4. ‘前面정지방형’의 세부형식

가옥 명	세부 평면형식	전체칸수 (정면)
밀양 손용상가옥	B'(두칸형): 단부 두칸형	1/6.5
밀양 손완헌가옥	C(두칸+퇴칸형): 후퇴발달+후퇴+퇴칸	1.5/5.5
창녕 성씨고가	B'(두칸형): 단부 두칸형	1/6
거창 신진범가옥	B'(두칸형): 단부 두칸형	1/4

A:전퇴형, A':전후퇴형, B:후퇴발달형, B':두칸형, C:세칸형

가. ‘前面정지방형’(그림 11의 1, 표4 참조)

‘前面정지방형’은 정지 앞쪽에 정지방이 놓인 형식을 말한다. 정지방이 안방과 정지의 메개공간 의 역할을 하며, 안채의 입면은 종전 한옥에 비해 단정하고 규범적으로 구성되었다. 안채의 규모가 정면 주칸 4칸 내지 6칸인 경우 정지의 규모는 대개 정면 1칸으로 구성된다. ‘前面정지방형’은 정지가 공간적으로 횡분할되어 앞쪽으로 정지방, 뒤쪽에는 정지를 배치한 것으로, 밀양 손용상가옥 등이 이 형식에 속한다. 밀양 손용상가옥은 안채의 측면 폭이 좁아 전퇴 柱列 앞으로 퇴칸 만큼 柱列을 돌출시켜 벽체를 세우고 정지방을 구성한 형식으로, 정지방이 안마당 쪽으로 돌출한 형태이다. 밀양 손완헌가옥은 후퇴를 제외한 측면 폭의

19) 김봉열, 「앞논문」, p.62



1/2되는 지점에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 맞추어 벽을 설치하여 정지방을 시설한 형태이다.

창녕 성씨고가<sup>20)</sup>는 정지의 측면 중앙부에 기둥을 세워 정지공간을 횡분할하고, 정지 앞에 정지방을 둔 형태이다. 이 집의 경우 정지방의 정면과 좌측면에 각각 띠살문을 달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다. 정지 앞쪽에 정지방을 배치하고 뒤쪽과 좌측면 두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근대한옥의 정지부분의 공간분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1)</sup> 거창 신진범 가옥<sup>22)</sup>은 정지의 측면 중앙부에 기둥을 세워 벽을 시설하고, 前後에 각각 정지방과 정지를 구성한 형태이다. 정지방은 온돌방으로, 안방 앞쪽의 뒷마루를 통해 각 室로 출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지방 정면에 쪽마루를 시설하여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다. ‘前面정지방형’의 세부형식은 표.7과 같다.

‘前面정지방형’의 정지방(그림 11의 1)은 독립적인 살림방보다는 정지에 부속된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거창 신진범 가옥은 독자적인 쪽마루를 부가해 독자적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시설된 살림방의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독립성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출입과 가사노동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지방은 使役人인 식모의 거처실과 상차림의 공간, 반찬 만드는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안채 정면에 정지방을 두고 정지가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안채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과 안채 후면의 외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밀양 손원헌 가옥에서는 안채 후면

의 외부공간이 넓어서, 이곳을 Service Yard로 사용하기 위해 우물, 장독대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안마당의 기능이 점차 안채의 후면으로 이동하는 근대한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정지방은 모두 온돌방으로 구성되나 전남지역 근대한옥의 정지방의 바닥은 온돌 또는 마루로 구성된다. 정지방 바닥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前面정지방형’에서 정지방은 안방과 분리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하던 정지를 정지방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前面정지방형’에서 안채의 외관은 당당한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안방, 건너방과는 이질적인 정지부분의 입면이 정지방으로 인해 동일한 패턴으로 정리되면서 안채 정면은 단정하고 규칙적 형태를 갖게 되었다.

표 5. ‘後面정지방형’의 세부형식

가옥 명	세부 평면형식	전체칸수 (정면)
밀양 이근성 가옥	B'(두칸형): 단부 두칸형	1.5/6.5
함안 이씨고가	B'(두칸형): 단부 두칸형	1.5/5.5
거창 신도성 가옥	C(두칸+퇴칸형): 후퇴발달+후퇴+퇴칸	1.5/5.5
산청 권씨고가	B(후퇴발달형): 퇴칸+퇴칸	1.5/7.5

A:전퇴형, A':전후퇴형, B:후퇴발달형, B':두칸형, C:세칸형

나. ‘後面정지방형’(그림 11의 2, 표5 참조)

‘後面정지방형’은 정지방이 정지 後面에 위치하는 형식이다. 정지와 안방의 내밀한 공간에 접한 정지방이 가사활동의 중심이 되어, 그리고 안마당에서 정지방이 은폐되어 노출되어 있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형식의 정지는 안채가 정면이 4칸 내지 6칸인 경우 1.5칸 크기이다. ‘後面정지방형’은 밀양 이근성가옥, 함안 이씨고가(그림12), 거창 신도성가옥, 산청 권씨고가에서 볼 수 있으며, 이 형식의 세부형식은 <표 5>와 같다. 정지방을 구성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거창 신도성가옥과 산

20) 지금은 정지부분이 개조되어 통 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분석에서는 건립초기의 상황으로 분석하였다.

21) 장병정, 「앞논문」 p.27

22) 현재는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되어 원형을 알 수 없지만, 면접조사를 통해 원형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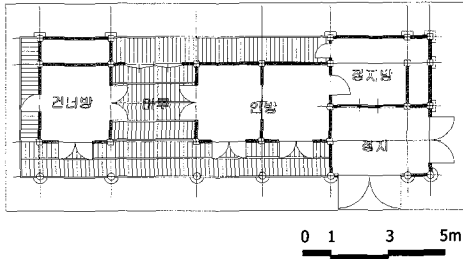


그림 12. 함안 이씨고가 안채평면도

청 권씨고가는 중심부의 柱列이 단부까지 연속된 형식으로, 중앙부 柱列에 맞추어 정지를 횡분할하고 앞에 정지를 두고 뒤에 정지방을 배치한 형태이다. 거창 신도성가옥에서는 후퇴 뒤로 셋기등을 달아내어 정지방을 확장한 경우이다.

‘後面정지방형’의 정지방 출입방식은 안방과 정지방 사이에 출입문을 달아 직접 통할 수 있게 하고, 정지와도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지방은 정지와 안방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기는 힘들다. 이와는 달리 거창 신도성가옥과 같이 정지방과 안방 사이에 문이 없고, 정지를 통해 안방으로 출입하는 방식도 있다. 이 집에서는 정지방 측면에 뒷마루와 개구부를 시설하여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後面정지방’은 정지 후면에 자리 잡아 정지와 안방의 내밀한 공간에 접하면서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안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내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일반정지형’(그림 11의 3)

‘일반정지형’은 정지방 없이 정지를 통칸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정지 내부에 찬마루를 두거나, 수납장을 시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 축퇴를 포함한 넓은 공간을 통칸의 정지로 사용하는 형식이 많으며, 이 형식에 해당하는 근대한옥은 <표 6>과 같다. 산청 박씨고가는 정지의 좌측부분을 외부로 돌출시켜 물건

들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함양 허삼들 가옥은 서울지방의 근대한옥을 모방하여 지방목수가 집주인의 견해를 반영하여 지은 집<sup>23)</sup>으로 ‘ㄱ자형’ 평면의 중앙에 정지를 배치하여 안채의 기능을 양 분화한 독특한 평면형태를 지니고 있다. 창녕 신씨고가와 밀양 손대식 가옥은 정지 내부의 모퉁이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낮은 찬마루를 시설한 경우이다.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일반정지형’은 ‘前面정지방형’과 ‘後面정지방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대개 정지가 통칸으로 구성되고 정지 내에는 수장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지 내부가 정지방과 정지로 구획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찬마루, 수납장 등의 부가적인 시설들이 부가되기도 했다.

표 6. 안채 건너방 부분 평면구성

평면구성	실례
전퇴형	온돌방+ 뒷마루 고성 최영덕가옥(AA), 밀양 안병기가옥(AA), 창녕 신씨고가(AA), 고성 최희석(A'A'), 산청 권갑용(AA), 산청 조동윤가옥(AA), 고성 박진사(BB)
	온돌방+ 반침+ 뒷마루 밀양 손영배(A'A'), 밀양 손대식(A'A'), 산청 박씨고가(AA), 함안 이씨고가(AA), 밀양 손용상(AA), 밀양 손완현(AA), 거창 신진범(AA),
후퇴 발달형	온돌방+ 반침+ 뒷마루 밀양손병구(BB), 거창신씨고가(BB)
	온돌방+ 온돌방+ 뒷마루 밀양손병순(A'B'), 산청최재기(BB), 산청권씨고가(BB), 산청민병기가옥(BB), 함양허삼들(BB),창녕성씨고가(BC), 고성이씨고가(BB), 밀양손병준(BB')
두칸형	온돌방+ 마루방+ 뒷마루 밀양 이근성가옥(B'B')

\*영어 알파벳기호는 안채평면의 중앙부와 단부의 평면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AA란 것은 중앙부와 단부가 공히 '전퇴형'인 평면을 말함.

(2) 건너방 부분 평면구성(그림13, 표6 참조)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건너방은 안채의 좌측 또는 우측 끝에 위치하며, 안방과 대청에 비해

23)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 박는,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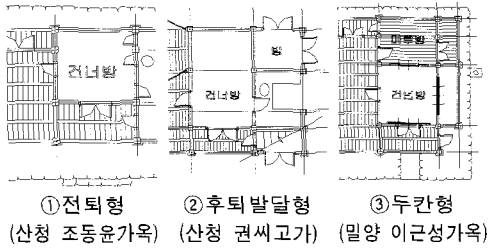


그림 13. 안채 건너방 유형

서는 공간적 변화가 많은 편이다. 건너방의 규모는 1칸 정도이며, 앞에는 중앙마루(대청) 바닥보다 200~300mm 정도 높은 뒷마루를 두고 있다. 이는 건너방의 난방을 위해 뒷마루 밑에 함실아궁이를 시설했기 때문이다. 건너방은 공간적으로 협소한 경우가 많아 대개 측퇴나 후퇴부분을 활용하여 여기에 반침을 두거나 아니면 室에 편입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건너방 형식 외에 측면으로 한 칸을 달아내고 거기에 누마루나 마루방 등을 시설한 형식도 있다. 그리고 건너방 측면에 폭이 좁은 쪽마루를 부설하고 여닫이 떠살문을 달아 밖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건너방 부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정면성을 갖기도 한다. 건너방을 평면유형에 따라 ‘전퇴형’과, ‘후퇴발달형’, ‘두칸형’으로 구분된다.(그림13)

‘전퇴형’(그림13의 1)은 건너방 앞에 전퇴를 둔 형식으로, 전퇴는 대개 뒷마루로 구성된다. 배면에 폭이 좁은 반침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전퇴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연구대상 근대한옥 중 14가옥에서 나타난다. 온돌방과 전퇴만으로 구성된 건너방 형식은 고성 최씨고가, 밀양 안병기가옥, 산청 권갑용가옥 등에서 나타나고(7/26동), 이 형식에서 배면에 반침을 부가한 형식은 밀양 손영배가옥, 산청 박씨고가, 함안 이씨고가, 거창 신진범가옥 등에서 볼 수 있다.(7/26동)

‘後退發達形’(그림13의 2)는 건너방 배면에

일반적인 후퇴보다 넓은 후퇴를 두고 거기까지를 건너방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확장된 공간은 수납공간이나 건너방에 부속된 副寢室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너방 후면에 폭 1,500~1,800mm의 넓은 후퇴(일반 후퇴보다 1~2尺 정도 넓음)를 시설한 후퇴발달형의 건너방은 확장된 공간을 수납공간이나 건너방에 부속된 침실로 사용하는 형식이다. 후퇴부분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경계부에 벽을 설치하고 문을 달아 사용한다. 건너방에 부속된 부침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너방과의 사이에 벽체 대신 미닫이문을 시설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밀양 손병순, 산청 최재기가옥, 산청 권씨고가, 거창 신도성가옥 등이 이 형식에 속한다.(10/26동)

‘두칸형’(그림13의 3)은 건너방을 횡 분할하여 각 1칸 규모의 온돌방과 마루방을 앞뒤로 배설한 형식이다. ‘후퇴발달형’의 건너방에서는 확장된 건너방 배면에 온돌방이 시설되나 ‘두칸형’에서는 건너방 뒤쪽에 마루방이 시설되는 차이를 보인다. 밀양 이근성가옥의 건너방은 ‘두칸형’으로, 앞쪽에 건너방을 두고 뒤쪽에 마루방을 두어 건너방과 마루방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공간으로 처리하고 있다.24)

이밖에 건너방 측면으로 1칸을 달아내어 건너방 부분의 공간을 확장하고 거기에 마루방이나 온돌방을 앞뒤로 배설한 경우도 있다. 그림 14는 건너방 부분의 공간구성과 실 분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청 권갑용 가옥(그림 14의 1)은 건너방 부분을 도리 방향으로 확대하고 마루를 배치하여, 건너방 부분의 공간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측면의 입면을 강조한 형식이다. 창녕 성씨고가는 건너방 우측칸을 횡분할하여 개방된 마루와 변소를 꾸미고, 마루에 세 짝의

24) 밀양 이근성가옥은 건너방의 뒤쪽에 마루방을 설치하고, 마루방이 안대청과 동선 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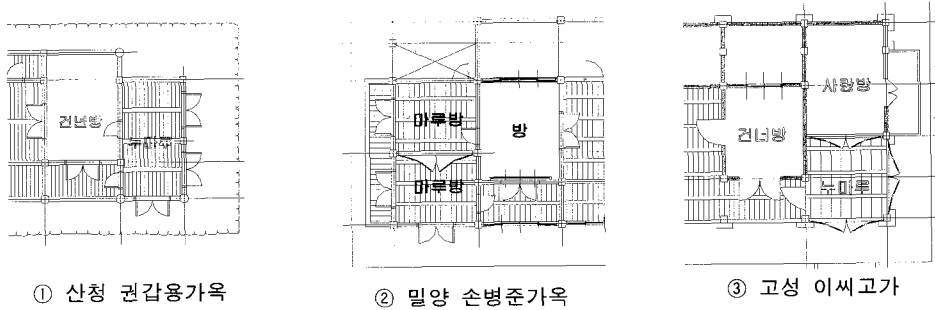


그림 14. 안채 건너방 부분 室 분화

미서기 유리문을 단 형식으로, 측면으로 출입할 수 있게 계단에 면해 쪽마루를 시설하고 쪽마루 외곽에 난간을 둘러놓았다. 이는 건너방 부분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경남지역 근대한옥은 안채의 건너방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안채는 전통방식 그대로 여성들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室의 확장요구에 의해 실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도 안채 내에서 남여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공간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남지역 근대한옥에서는 안채의 건너방이 사랑방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남자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 외부 손님을 맞는 공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안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의 공간에서 확장하여 가족과 타인의 공간을 구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해결방식으로서 이러한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방식을 확대 적용하였다.<sup>25)</sup>

고성 이씨고가(그림 14의 3)는 건너방 측면에 사랑방과 누마루를 부가하여 안채 건너방을 독립된 영역을 확보한 사례이다. 건너방 측면에 부가된 실을 전후로 횡분할하여 앞에 누마루, 뒤에 온돌방(사랑방)을 시설한 형태이다. 안채 앞쪽의 툇마루에서 누마루로 통하는 연

결통로는 없으며,<sup>26)</sup> 다만 단부 우측면에 있는 문을 통해 사랑채나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 건너방 우측에 비교적 독립적인 온돌방과 누마루를 배설한 것은 건너방과 주변공간의 독립성을 강조한 예라 하겠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러한 누마루를 ‘공로’라고 부르며, ‘공로’란 전통적인 사랑채의 누마루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으로, 공로는 여인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sup>27)</sup> 건너방은 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면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나, 건너방 측면으로 室을 부가하여 마루방과 온돌방을 앞뒤로 배설한 것은 室 분화에 의한 부분적인 겹집화 경향이라 하겠다. 그리고 건너방 부분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별도의 출입시설을 둔 것은 근대한옥의 평면구성상 특징이라 하겠다.

### 5.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각 부분의 평면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 안채 정면 툇마루에 면한 누마루의 측면에 작은 띠살 창이 달려있으나 정면 퇴칸 보다 높은 위치에 달려 있어 출입을 위한 개구부로 볼 수 없다.

27) 특히 우측방은 공로라고 하는데, 여인들이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하는 곳으로, 통풍이 잘되어 여름에 시원한 이 곳에서 여인들이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강민 「앞논문」 p.59에서 재인용)

25) 이강민, 「앞논문」 p.58

1) 경남지역 근대한옥의 안채 평면유형은 퇴칸의 발달정도와 측면 間數에 따라 크게 '전퇴형', '후퇴발달형', '두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채의 중앙부와 단부의 평면을 비교할 때 중앙부에 비해 단부의 정지와 건너방 부분의 평면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안채 좌우 끝에 위치하는 정지나 건너방 부분의 평면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외에 '전후퇴형', '두칸+퇴칸형', '세칸형'으로 구분되었다. 근대한옥 안채의 초기 평면형인 '전퇴형' 평면은 다양한 室面積의 확대요구에 의해 중앙부(안방, 마루) '전퇴형'에 정지'두칸형'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중앙부(안방, 마루) '전후퇴형'에 정지부분 '두칸+퇴칸형'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칸형'의 정지부분 간살은 중심부(안방, 마루)에 까지 영향을 미쳐 '후퇴발달형' 평면을 구성하게 했다. 안채 규모는 정면(도리방향) 주간이 5칸 또는 6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부가구는 대개 무고주 3량가와 무고주 5량가의 구조였으며, 정지부분 측면이 2칸인 것은 무고주 3량가보다 무고주 5량가에서 많이 나타났다.

2) 마루의 평면유형은 '전퇴형'과 '후퇴발달형'으로 구분되며, 평면유형에 상관없이 대개 마루(대청)는 정면 2칸 규모이며, 일부 근대한옥에서는 마루를 횡분할한 경우도 있다. 근대기 주생활의 변화에 의해 마루가 수장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마루에 대한 개념이 생활에 바탕을 둔 기능적 사고로 바뀐 것이다. 외부로 보여 지는 부분과 내부로 감춰지는 부분이 확실히 나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3) 안방은 안채 평면구성에서 공간구성의 변화가 가장 미약한 공간이다. 안방 평면의 유형은 구성형식에 따라 후퇴가 없이 전퇴만 있는 경우와 후퇴가 수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

우, 그리고 안방에 부속된 副寢室이나 마루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전퇴형'과 '전후퇴', '후퇴발달형', '두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방 평면형식이 '후퇴발달형'과 '두칸형'일 때 주침실 용도의 아랫방과 副寢室 또는 고방, 반침 등으로 사용되는 옷방으로 구분되고, 이들 공간의 경계에는 필요시 공간을 통합할 수 있게 창호를 시설한 사례가 많았다.

4) 정지는 공간구성과 사용방식에 따라 '前面정지방형', '後面정지방형', '일반정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정지형'은 안채의 단부에 정지가 놓이고, 내부공간을 모두 정지 용도로 사용하는 형식이다. '前面정지방형'과 '後面정지방형'은 정지방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 방향으로의 확장 또는 분화라는 구조기술적인 토대에 의해 정지에 부속된 정지방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前面정지방형'은 前面에 정지방을 두고 뒤에 정지를 형태이며(4/26동), '後面정지방형'은 앞쪽에 정지를 두고 뒤쪽에 정지방을 둔 형태(4/26동)이다. '前面정지방형'은 안채 前面에 정지방을 배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안채의 정면은 당당한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後面정지방형'은 정지 後面에 정지방을 배설한 것이다. 정지방이 정지와 안방의 내밀한 공간에 동시에 접하면서 가사노동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내밀한 구조를 가졌다.

5) 건너방은 평면유형에 따라 '전퇴형'과, '후퇴발달형', '두칸형'으로 구분된다. '전퇴형'은 건너방 앞에 전퇴를 둔 형식으로, 전퇴는 대개 뒷마루로 구성된다. 배면에 폭이 좁은 반침을 두는 경우도 있다. '후퇴발달형'은 건너방 배면에 일반적인 후퇴보다 넓은 후퇴를 두고 거기까지를 건너방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확장된 공간은 수납공간이나 건너방에 부속된 副寢室로 사용된다. ‘두칸형’은 건너방을 횡분할하여 각 1칸 규모의 온돌방과 마루방을 앞뒤로 배설한 형식이다. ‘후퇴발달형’의 건너방에서는 확장된 건너방 배면에 온돌방이 시설되나 ‘두칸형’에서는 건너방 뒤쪽에 마루방이 시설되는 차이를 보인다.

도』 2004, 밀양대 석사논문

#### <參考文獻>

1. 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일지사, 1995
2.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보진재출판사, 1981
3. 강영환, 『주거문화의 역사』,기문당, 1994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Ⅳ-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5. 최 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 박사논문
6. 이호열 「주거-반가」, 『한국건축사연구 1』,한국건축역사학회(발언)2003, p.223~224
7.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8. 이상길, 「경남 밀양지역 근대한옥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2년, 밀양대 석사논문
9. 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부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1,서울대 석사논문
10. 문세이, 『근대 부농가의 부엌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2001, 원광대 석사논문
11. 장병정, 『경남 중부지역 근대한옥에 관한 연구』 2004,경남대 석사논문
12. 송인만, 『밀양지역 근대한옥의 조영척 건축역사연구 제15권 2호 통권46호 2006년 6월